

IPTV서비스와 국내 콘텐츠 활성화 방안

□ 김영철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콘텐츠사업지원국

1.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네트워크, 단말기의 융합을 이끌어 냈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며, 사업자의 융합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컨버전스”로 통하는 방송·통신융합은 물론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다. 미국은 '96년 Telecommunication Act를 개정하면서 방송·통신 융합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일본은 2002년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시행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방송 시장 진출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융합의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작년 7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안건들은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체계 정비,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 방안, 방송통신 기구 개편 및 법제 정비 등이다. 이러한 논

의 중 가장 핵심인 과제는 방송통신융합기구와 IPTV서비스, 콘텐츠 관련 이슈 등이다.

현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제1차 논의 과제인 기구 개편(안)을 내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물론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규제와 진흥 정책의 근간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 기구 논의는 정부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통합 기구 논의와 함께 열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IPTV서비스에 관한 논의이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작년 8월 16일 제3차 고위정책협의회에서 IPTV 시범사업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양 부처는 “IPTV 시범사업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IPTV시범사업자를 공모했다. 선정 결과, KT 등 통신사업자 컨소시엄인 C-Cube와 다음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2006년 11월~12월(2개월)에 걸쳐 시범사업을 추진해 기술적 가능성과 개선사항 점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IPTV 서비스의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기술이나 사업자의 문제가 아닌 그 속에 담겨지는 “콘텐츠”가 문제이다. 케이블TV, 위성방송, DMB 등 여러 매체가 등장했지만 고전하는 가장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의 차별화 문제이다. 유료방송 도입 이후 시청자에게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나 채널들의 집중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지상파방송과 일부 지상파 계열 PP사 및 MPP 등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의 집중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유료방송 산업의 큰 어려움이고 콘텐츠 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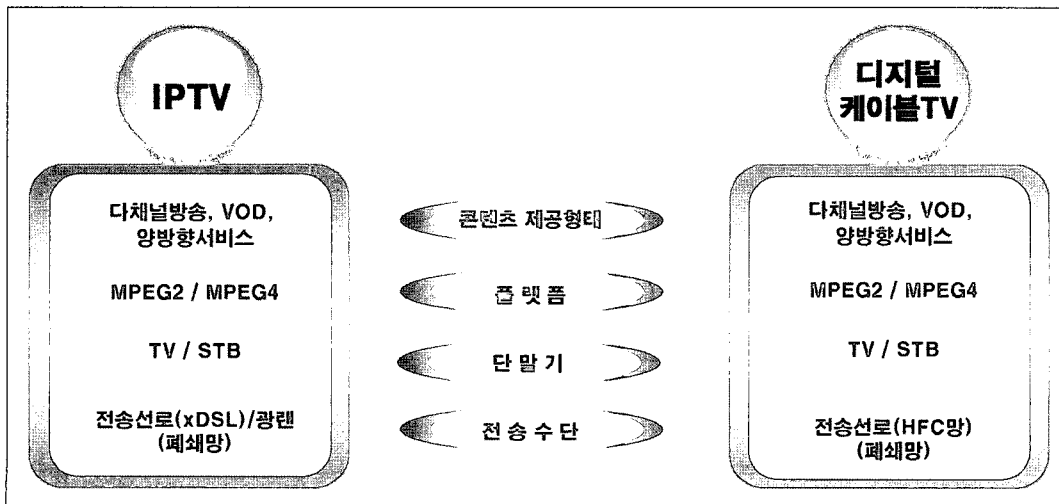
네트워크와 압축 기술의 발달은 통신사업자가 사업다각화를 위한 방송·미디어 사업 분야의 직접 진출 확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해 왔다. 기술의 발

달과 급변하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다양한 매체들의 출현과 경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부분의 면에서 IPTV서비스는 방송으로 분류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IPTV가 방송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방송이 지닌 공익성과 여론 지배력을 감안하여야 하고, 매체 정책 목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존 매체와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IPTV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시청자 복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도입해야 하는지 본 기고문에서 필자는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IPTV 서비스와 케이블TV 서비스 비교

IPTV 서비스란 Internet Protocol을 이용해서 다



〈그림 1〉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 비교도

주)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는 여러 측면에서 동일한 서비스로 비교·분석된다.

채널 방송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IPTV서비스와 케이블TV 서비스를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IPTV서비스와 케이블TV서비스는 동일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국내에서의 IPTV서비스는 통신사업자 주도의 서비스이고 케이블TV 서비스는 미디어 사업자들이 사업 주체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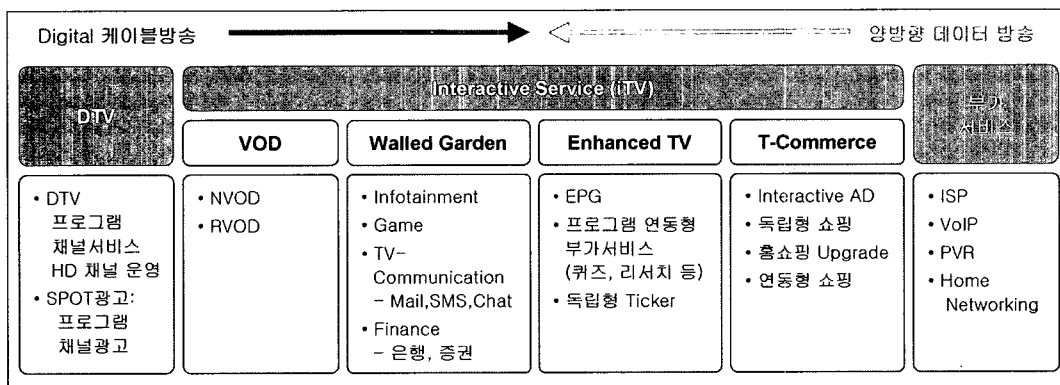
1. 콘텐츠 제공 형태의 동일성

IPTV와 디지털케이블TV는 다채널의 양방향 콘텐츠를 실시간 또는 VOD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콘텐츠 제공 형태가 동일하다.

디지털케이블TV가 KBS, MBC, SBS 등의 지상파TV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고 m.net, OCN, YTN 등 다양한 PP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T-Commerce 등의 양방향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IPTV서비스 또한 디지털케이블TV와 콘텐츠 제공형태는 동일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영상 압축 방식 동일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의 동영상 콘텐츠 압축 방식과 전송을 위한 메시지 포맷도 동일하다. 디지털케이블TV는 MPEG2 또는 H.264로 디지털 부호화 및 압축된 방송 신호를 다채널 수용 및 안정적 전송을 위해서 MPEG2 전송 스트림(TS, Transport Stream)에 싣고, 가입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가입자망 전송 방식에 적합한 신호로 변복조(유선, 무선, 위성) 또는 디지털 포맷으로 (디지털 광통신망, IP망 프로토콜 등) 변환하여 전송한다. 이때, MPEG2 TS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개의 방송 프로그램을 한 개의 전송 스트림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방송 프로그램(채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IPTV가 이 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한다면 기존의 디지털 방송이 유선, 위성, 지상파로 구분되듯이 전송망 방식만 인터넷망(IP망)을 사용할 뿐 동일한 디지털방송 기술로 볼 수 있다. VOD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구성된 KT의 홈엔서비스에 적용된 전송방식도 MPEG2로 부호화(encoding) 된 동영상 콘텐츠를 MPEG2 TS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디지털케이블TV 콘텐츠 제공 현황

(표) 디지털 콘텐츠 전송 프로토콜 구조 비교

구분	IPTV	디지털방송
디지털 부호화 방식(압축)	MPEG2/H.264	MPEG2/H.264
전송/다중화 구조	MPEG2 TS	MPEG2 TS
전송망(신호)	인터넷(IP망)	케이블, 위성, 지상파 주파수 (변복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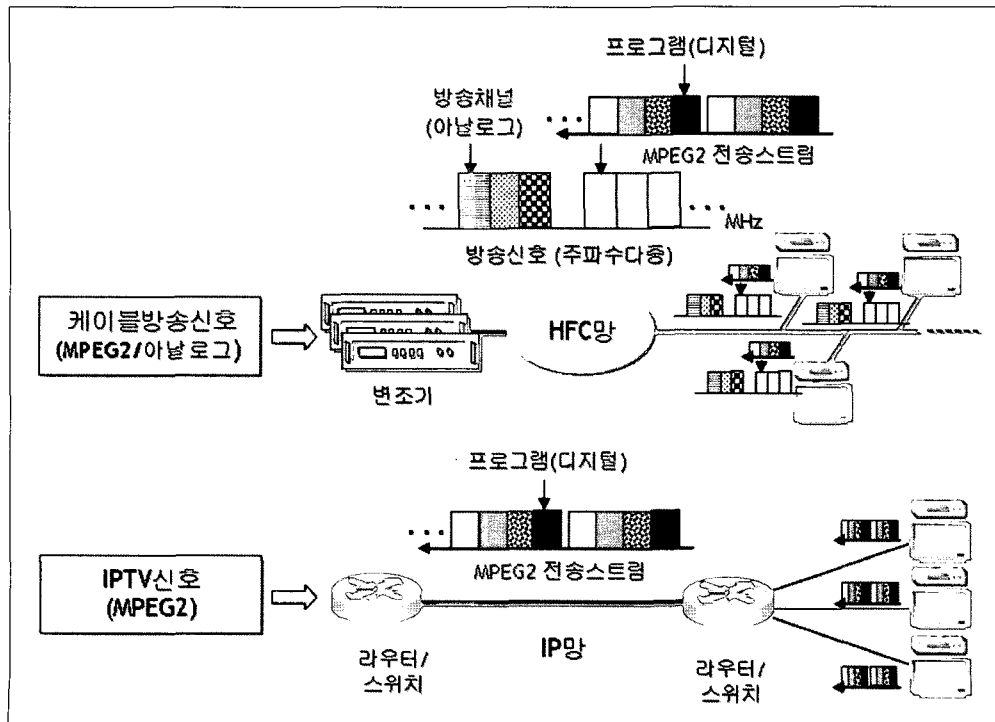
3. 단말기의 동일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모두 셋톱박스 연결을 통해 TV단말기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4. 전송수단 동일

방송망은 신호의 전송 측면에서 볼 때 일대다

(1:N) 통신이 가능해야 효율적으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방송망은 다수의 수신자에게 신호를 전송하기 좋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IP망 프로토콜은 송신자와 수신자간 일대일 전송방식(unicast)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LAN에서 모든 물리적 신호가 공유되는 방송망과 같은 방식의 개념으로 신호가 전송된다. IP망에서 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의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전송속도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일대다 전송방식(multicast)이 개발되었고 최근 도입되는 라우터나 스위치는 멀티캐스트 전송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IP망이 유니캐스트로 운영되더라도 향후 멀티캐스트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이다.



(그림 3) 케이블TV와 IP 방송신호 전송 방식 비교

III. IPTV 서비스 해외 동향 및 시사점

1. 해외 IPTV 서비스 사례

IPTV는 지리적 환경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달하였다.

이탈리아 제2의 통신사업자인 e.Biscom이 2003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FastWeb의 경우, 자국 시장 상황에서 케이블TV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이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방송 서비스 진출에 대해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가 정책적으로도 신규 서비스로의 IPTV 활성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홍콩의 PCCW(Pacific Century CyberWorks)가

제공하는 NOW Broadband-TV는 서비스가 시작된 2003년 3/4분기 가입자 2만명에서 2004년 4/4분기 가입자 36만명으로 급성장하였는데, 이는 홍콩의 독점적인 케이블TV 사업자인 i-Cable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PCCW는 방송 분야에서의 수익 극대화보다는 자사 통신서비스 이용 고객의 이탈 방지에 포커스를 맞추려는 목적으로 무료 셋톱박스로 무료 방송을 보는 고객이라도 PCCW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화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같은 저가 정책은 가입자의 자불의사를 낮춰 IPTV에 대한 가입자 당 평균 수익(ARPU)이 케이블TV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상황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방송·통신 일원 행정속에서 2002년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시행에 따라 통

(표 2) IPTV 해외 사례 현황

		이탈리아	홍콩	일본
대표 사업자		Fastweb 방송주체: e.Biscom	NOW Broadband TV 방송주체: PCCW	- Hikari Plus TV 방송주체 : KDDI - BB TV 방송주체 : Softbank
시장 환경	유료방송	위성방송: 250만 IP-TV: 16만	케이블TV: 64% 위성방송: 2% IP-TV: 34%	케이블TV: 2,300만 위성BS: 1,200만 위성CS: 350만 IP-TV(BB TV): 5천-1만
	브로드밴드	DSL: 17만 (52%) FTTH: 16만 (48%)	DSL: 60% 케이블: 30% 기타: 10%	DSL: 1,119만 (75.1%) FTTH: 114만 (7.6%) 케이블: 258만 (17.3%)
정책	규제 기구	AGCOM(방송통신위원회)	시청각규제기구 → Codes de conduite	총무성(방송/통신규제기구)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서비스위상	통신서비스 ¹⁾	이중적 위상 ²⁾	혼합된 위상 ³⁾
	규제	거의 없음	서비스 모델 속에 제공된 장치를 통한 약화된 규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방송법 규정 준용
IP-TV 도입배경		위성방송 독점 상황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반독점규제차원	케이블TV 독점 상황	공정경쟁의 틀 조성

1) 유럽연합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의 규정에 따라,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나 쌍방향 텔레비전(개인적인 요구의 개념이 고려되는 한도 내에서) 같은 점대점(point-to-point) 서비스는 방송 사업자에 적용되는 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2)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들은 시청각(방송) 규제위원회 규제를, 전송사업자들은 통신규제자의 규제를 받음.

3) 통신서비스를 통한 방송 서비스

신사업자의 방송 진출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3월부터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시행되어 현재 11개 사업자가 있지만, IPTV 서비스가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일본의 IPTV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거대 통신회사에 대한 TPS 사업 제한이다. 총무성의 행정지도(1984년 제정된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의 거대 통신회사인 NTT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동·서 NTT는 자사가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에 3%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동·서 NTT는 방송 사업자에게 브로드밴드 회선을 제공하는 일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동·서 NTT와 ADSL 혹은 FTTH를 계약하고, 브로드밴드 방송은 별도 사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인터넷 접속, IP 전화와는 별도 사업자와 계약하면, 사용자로서는 계약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서비스 세트(인터넷, IP 전화 등) 할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소프트뱅크나 KDDI는 전 서비스를 한 회사와의 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IP-TV의 성공 여부는 각 국가의 시장 환경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국가의 방송·통신 시장 환경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나아가 방송·통신 규제 정책에 따라 IP-TV 서비스 도입 및 보급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사점 :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 후 체계적 IPTV서비스 도입

케이블TV가 존재하지 않는 위성방송의 독점 상황에서 도입되어 빠른 성장을 보이는 이탈리아의 Fastweb이나 케이블TV 사업자(i-Cable)의 독점 상황에서 정부의 반독점규제차원으로 통신업자의

IP-TV가 허용된 홍콩의 사례에서와 같이 IP-TV 사업 도입에 있어서는 자국 내 시장 상황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케이블 TV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70%가 넘는 상황이지만, 77개 방송권역에서 1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평균 10만가구를 대상으로 방송서비스를 하고 있다. 반대로 KT와 같은 거대 통신사업자가 자사의 기존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망 사용자를 대상으로 홍콩의 PCCW와 같이 셋톱박스 무료 제공 및 서비스 가격 하락과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면 각 지역의 케이블 TV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이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002년부터 '전기통신무이용방송법'을 시행하면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가운데, IP-TV와 같은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 길을 열기 이전에 기존 방송사업자, 특히 케이블 TV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SO의 점유를 5분의 1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본은 1993년 SO의 지역사업자 요건과 서비스 구역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케이블 TV 관련법인 유선텔레비전방송법은 1994년 SO 허가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했고, 1999년 모든 케이블 TV의 외자 규제 및 외국인 임원 규제를 철폐했다. 즉, 일본은 2002년 등록제로 IP-TV 등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의 길을 열기 수년 전부터 이미 방송사업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다.

또한 일본 내 최대 통신 인프라를 확보하여 ADSL과 광가입자망(FTTH)을 독점한 NTT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나 동/서 NTT가 직접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할 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소수의 지분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NTT는 자사의 망을 이용해 방송 사업을 하고자 하

(표 3) 국가별 방송·통신융합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유형

구분	유료방송·통신 시장의 사업자 특성	정부정책 방향
이탈리아	거대 방송사업자 vs 거대·군소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의 방송 시장 진출 적극 추진 (방송시장에 대한 반독점규제 차원)
홍콩	거대 통신사업자 vs 거대 통신사업자	상 동
일본 NTT	군소 방송사업자 vs 거대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의 방송 시장 진출 봉쇄 (통신시장에 대한 반독점규제 차원)
일본 KDDI	군소 방송사업자 vs 군소 통신사업자	기존 방송사업자에 경쟁력 확보(규제완화) →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

는 사업자에게 망을 임대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KT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IP-TV 서비스도 직접 준비중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NTT에 대한 이같은 규제는 IP-TV를 통해 SO와의 치열한 경쟁 관계가 예상되는 KT가 최근 SO에 임대하는 선로설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해 갈등을 빚는 등 통신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가 경쟁사에 행할 수 있는 지배력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했다(전자신문, 2005. 1.26).

이처럼 IP-TV 서비스 도입 및 보급 확대에 있어서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IP-TV 도입 정책의 중심은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이탈리아나 홍콩과 같이 유료방송 시장 내에서 특정 매체의 독과점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으로의 진출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반대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 서비스 진입은 일본의 NTT 사례와 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방송시장 내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서비스 진출, 즉 IP-TV 서비스 도입은 기존 방송사업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방송시장 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는 일이 선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방송 시장 진출시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해외 사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IPTV와 디지털케이블TV는 동일서비스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라 미디어사업 분야 직접진출 확대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통신사업자는 오랜 기간 해당분야 산업을 지원해온 일부 전·현직 정보·통신 관료들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 해당 부처 및 일부 언론 등에 대대적인 로비를 진행하려 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KT 등에서 주장하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폐쇄형 인터넷망(IP망)을 이용하여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등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다채널 유료방송”으로 사실 케이블TV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쌍방향 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와 동일하다.

무릇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규 방송서비스의 도입은 그 서비스 도입에 따른 명분과 명확한 정책적 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기존의 유사한 매체나 산업이 존재할 때에는 더더욱 그 진행 절차가 공개적이고 공정하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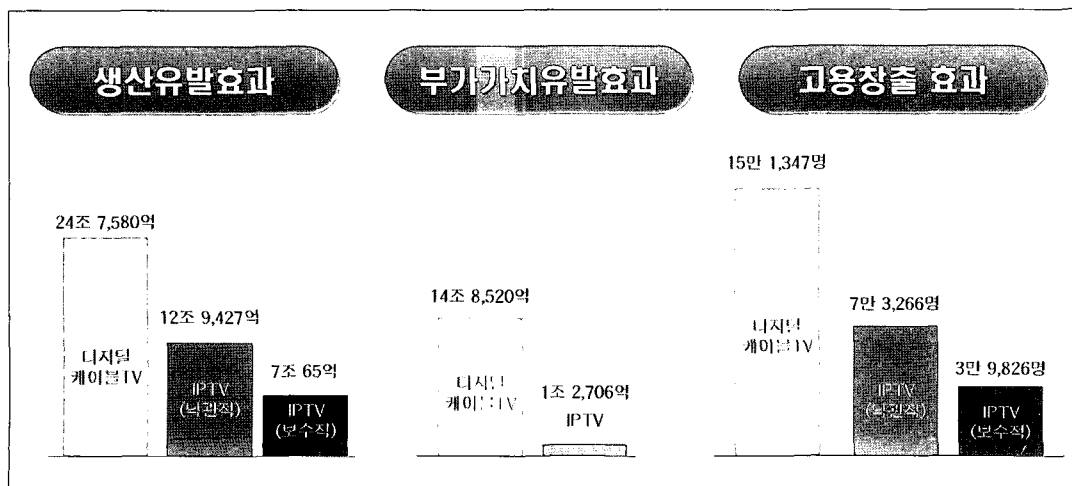
한다. 만일 그러한 절차나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도입을 추진한다면 이는 사회 갈등으로 야기되어 엄청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입안 시 규제의 형평성과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하고, 서비스 도입 일정 등 각종 정책에 대한 행정 예고제를 통해 시청자와 사업자 등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송의 디지털전환은 세계 각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날로그방송의 중단과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해 각종 정책적 배려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디지털 케이블 기술 정책은 디지털TV, 셋톱박스 등 관련 가전산업분야의 수출경쟁력 지원과 세계 디지털장치 산업 선도를 목표로 한 정보통신부의 주도적인 “오픈케이블 기술표준화 정책” 유인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오픈케이블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실시하여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적 시행착오와 서비스 매물비용을 전적으로 케이블TV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IPTV와 시청자 복지 증가는 불투명

케이블TV방송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상용서비스는 2000년대 초에 정보통신부에서 기술표준을 확정하고 방송위원회에서 디지털방송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승인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2005년 2월부터 서비스되어 2007년 1월말 현재 32만여 가구가 시청하고 있다.

디지털케이블TV방송을 통한 HD방송과 다양한 쌍방향 서비스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과는 다른 시청자 유익을 줄 수 있으며, “TV-전자정부 서비스”는 지자체와 함께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세계 각국이 그 발전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한 쌍방향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VOD·PPV·소수자 맞춤방송·권역별 방송 등은 기존 지상파방송 중심의 일방 전달 방송을 시청자가 원할때에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청자 주도적 참여방송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림 4) 디지털케이블TV와 IPTV의 산업유발효과 비교

특히 77개의 행정구역단위로 전국에 소재한 지역 케이블TV를 통한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과 국회의원 선거방송은 과거 청중 동원 등 금권선거의 폐단을 없애고 공정한 미디어선거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특정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 집중방지 필요

방송법은 방송사업이 가진 공정성의 보장을 위해 특정사업자의 여론지배력 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폐단을 우려해 그 규제를 강력히 하고 있다. 이는 다양성 확보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보호와 공정경쟁의

보장을 위함이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국민(시청자)을 위한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 왔다.

4. IPTV서비스는 콘텐츠 활성화 계기가 되어야 함

IPTV도입의 가장 큰 목표는 국내콘텐츠 육성에 두어야 한다. 국내 콘텐츠는 그 민족의 사상이요 문화의 요체이며 오랜 삶의 결정체이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퍼뜨려야 할 명제인 것이다.

참고 문헌

- [1] (2004), "세계의 ADSL 텔레비전 서비스 현황", <동향과 분석>, 통권 196호.
- [2] (2005), "일본의 IP-TV 제도와 사업자 현황", <동향과 분석>, 통권 217호.
- [3] 2005b), "IP TV 규제와 상호검열 규제", <뉴스레터>.
- [4] 강재원(2005. 6. 17), "IP-TV의 기술적 특성과 규제 정책 방향", <방송학회 쟁점과 토론 학술세미나> 자료집, 2-28.
- [5] 권호영(2005a), "IP TV의 동향과 전략", (KBI 연구보고 04-15), 커뮤니케이션북스.
- [6] 금융감독위원회(2005), "KT 재무자료": <http://www.fsc.go.kr>
- [7] 김남훈(2005), "다채널유료방송의 경쟁격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8] 김신동(2005),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 전망과 이슈: IP TV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정보기술과 문화연구소.
- [9] 김영석·김훈(2005), 「통방융합 이슈리포트: 해외 주요국의 IP TV 서비스 및 정책/규제 동향」, KT 경영연구소.
- [10] 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4), "특집/ 세계의 방송 2004 프랑스", <동향과 분석>, 통권 208호.
- [11] 방송위원회(2004), "방송산업실태보고서 2002-2004"
- [12] 방송위원회(2006), 보도자료, "방송위·정통부, IPTV 시범사업 공동 추진 : 제3차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합의", 2006. 8. 16.
- [13] 방송위원회(2006), 보도자료, "방송위·정통부, IPTV 시범사업 공동추진협의회 구성", 2006. 9. 1.
- [14] 방송위원회(2006), 보도자료, "방송위·정통부, IPTV 시범사업자 공모", 2006. 9. 11.
- [15] 방송위원회(2006), 보도자료, "IPTV 시범사업 협약 체결", 2006. 11. 9.
- [16] 방송위원회(2006), 보도자료, "IPTV 시범사업자 선정 결과", 2006. 10. 13.
- [17] 방송위원회(2007), 보도자료, "제4차 IPTV 시범사업 공동추진협의회 개최", 2007. 1. 31.
- [18] 오정숙(2005), "홍콩의 IP TV 서비스 시장 현황", <정보통신정책>, 제17권 7호 통권 368호.
- [19] 정운석(2005),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향후 전개방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 한운영(2005). "IPTV 사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 방송시장 공정경쟁방안에 관한 연구". 뉴미디어 포럼 발제문.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 [21] OECD(2005. 6. 3). 「OECD Roundtable o Communications Convergence London」, 방송위원회 내부 자료.
- [22] Ofcom(2005). 「Digital Television Update - Q1 2005」.

필자소개



김영철

- 2002년 : 방송위원회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위원
- 2004년~2005년 : 정보통신부 IT839인프라 전략협의회 위원
- 2006년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 심의위원
- 2003년~2006년 :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KLabs) 사무처장
- 2005년~현재 :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KDCF) 감사
- 현재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콘텐츠사업지원국장